

한덕수 권한대행,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방문

- 한·미 조선협력 강화는 상호이익 증진 및 한국 조선업의 재도약 기회
- 울산조선소 선박 건조시설 시찰 및 현장 직원 등 격려

-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.16.(수) 13:00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.
 -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발표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-미간 3대 협력과제 중 하나로 ‘조선업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,
 - 세계 최대 규모로,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하여 선박 건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- 이날 한 권한대행은 “최근 미국의 새로운 관세정책으로 전세계가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며, 우리 산업이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”고 밝히며,
 - “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,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- 특히 한 권한대행은 “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-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”는 점을 강조하며,
 - “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으며,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,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,

-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,
 - 앞으로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만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박은경	044-200-2211
	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권회근	044-200-2212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우	044-200-2227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